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1-2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 자녀 · 육아인식조사: 저출산에 대한 인식

2025. 7. 30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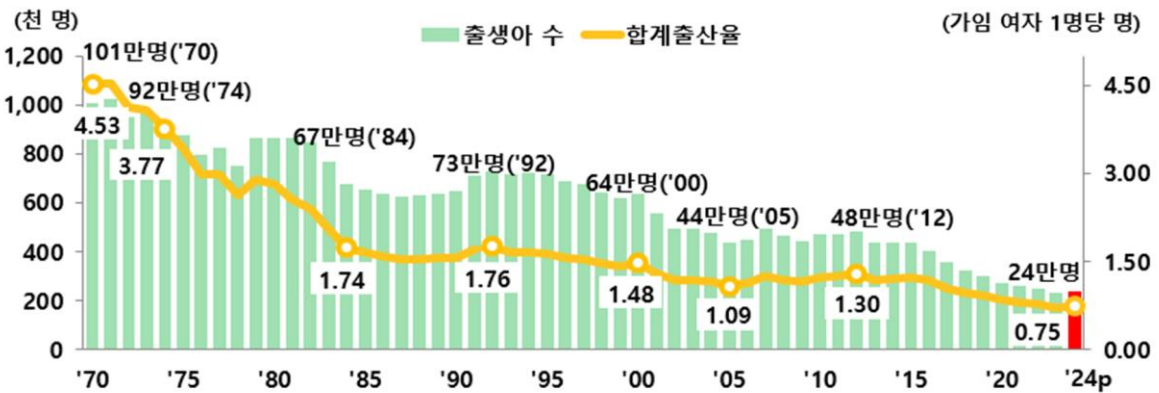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심각한 문제다 79% 전반적으로 세대, 성별 관계없이 우려 목소리 커

통계청의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8천 3백 명(3.6%)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또한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5월 출생아 수](#) 또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천여 명 증가한 10만 6천여 명으로,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 2023년 대비 3.6% 증가  
합계출산율은 0.75명, 2023년 대비 0.03명 증가



출처: 통계청 2024년 출생·사망통계 보도자료([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35209](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35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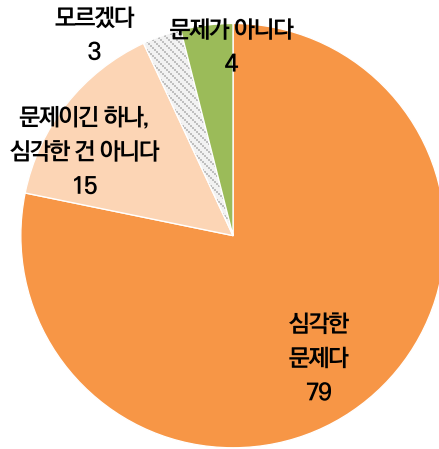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감소세가 멈추긴 했으나, 여전히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심각한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이긴 하나 심각한 건 아니라는 사람은 15%이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4%에 그친다. 남성,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 고령층 남성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세대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함을 공유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심각한 문제다 79%

남성, 고령층일수록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나, 전반적으로 세대, 성별 관계없이 우려 목소리 커

(단위 : %)



	사례수 (명)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이긴 하나, 심각한 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모르 겠다
전체	(1,000)	79	15	4	3
<b>성별</b>					
남자	(495)	85	10	3	2
여자	(505)	74	19	4	3
<b>연령</b>					
18-29세	(153)	69	22	5	3
30대	(150)	75	15	4	6
40대	(173)	79	14	5	1
50대	(195)	84	11	3	2
60대	(178)	83	14	2	2
70세 이상	(151)	85	12	2	1
<b>혼인여부</b>					
미혼	(337)	74	17	5	4
배우자 있음	(556)	84	13	2	2
사별, 이혼	(107)	73	17	7	3
<b>자녀유무</b>					
있음	(618)	82	13	2	2
없음	(382)	74	16	6	4

2025년 조사	사례수 (명)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이긴 하나, 심각한 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모르 겠다
전체	(1,000)	79	15	4	3
<b>성별 x 연령</b>					
남자_18-29세	(80)	76	17	6	2
여자_18-29세	(73)	61	28	5	5
남자_30대	(78)	80	8	5	7
여자_30대	(72)	70	23	3	5
남자_40대	(88)	84	10	6	0
여자_40대	(85)	74	19	5	2
남자_50대	(98)	88	10	2	1
여자_50대	(97)	80	12	5	4
남자_60대	(87)	89	8	2	1
여자_60대	(91)	77	20	1	2
남자_70세 이상	(64)	93	7	0	0
여자_70세 이상	(87)	79	16	4	2

질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천 3백 명,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 2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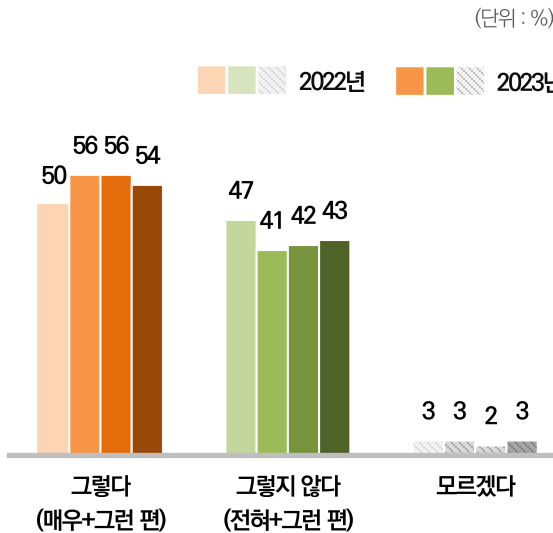
###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54%,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51%

저출산 문제가 국가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노력을 자녀 출산에 대한 압박으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조사 결과, 다수가 자녀 출산에 대한 강요와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체감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4%가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 라는 데 동의한다. 2023년 56%, 2024년 56%에 이어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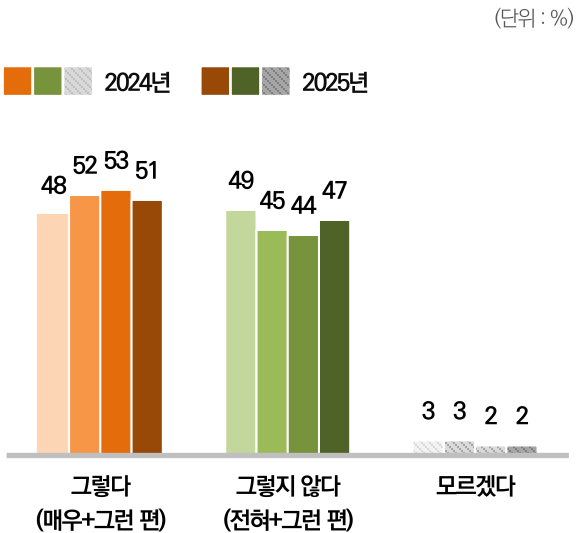
무자녀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51%가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데 동의한다. 2023년 52%, 2024년 53%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우리 사회, 부부에게 자녀 가질 것 강요한다 54%



질문: 다음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 자녀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51%



질문: 다음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비고: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응답의 합,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6. 3. ~ 6. // 2023. 6. 9. ~ 12. // 2024. 4. 5. ~ 8. // 2025. 4. 4. ~ 7.

## 30대는 5명 중 3명이 ‘우리 사회가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 강요’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인식해

**지난해**에 이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워야 하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압력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18-29세의 60%, 30대의 63%가 출산 강요 분위기에 동의해 40대 이상의 체감 수준보다 높다. 현재 미혼인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각각 57%가 이에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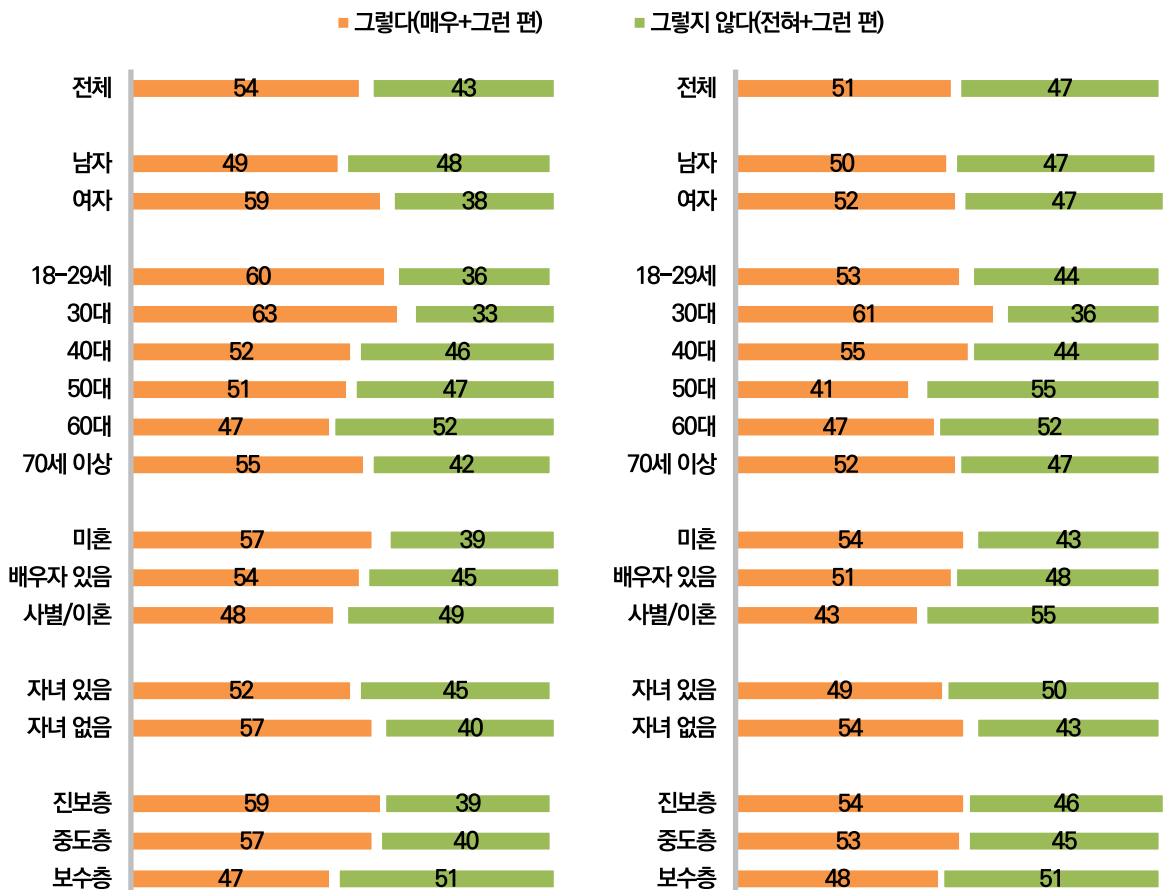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마찬가지다. 18-29세의 53%, 30대의 61%, 40대의 55%가 이에 동의하며,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각각 54%가 여기에 동의한다. 사회적 압력의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압력을 더 민감하게 체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30대는 5명 중 3명이 ‘우리 사회가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 강요’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인식해

(단위 : %)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질문: 다음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 2·30대, 미혼,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 출산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하게 체감 같은 여성이라도 2·30대와 50대 이상, 결혼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 커

성별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18~29세 여성의 71%, 30대 여성의 70%가 출산 강요 분위기를 체감하는 반면, 동년배 남성은 각각 50%, 57%만이 이를 체감한다. 미혼 남녀의 차이(여성 68%, 남성 49%), 자녀가 없는 남녀의 차이(여성 67%, 남성 49%)도 크다.

같은 여성이라도 세대와 혼인 상태에 따른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도 눈에 띈다. 30대 이하 여성 10명 중 7명 가량이 출산 강요 분위기를 체감하는 것과 달리, 60대 여성은 49%, 70세 이상 여성은 56%만이 이를 체감했다. 혼인 유무에 따른 차이(미혼 여성 68%, 기혼 여성 58%),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자녀 없는 여성 67%, 자녀 있는 여성 54%)도 크다. 이는 남성의 인식이 세대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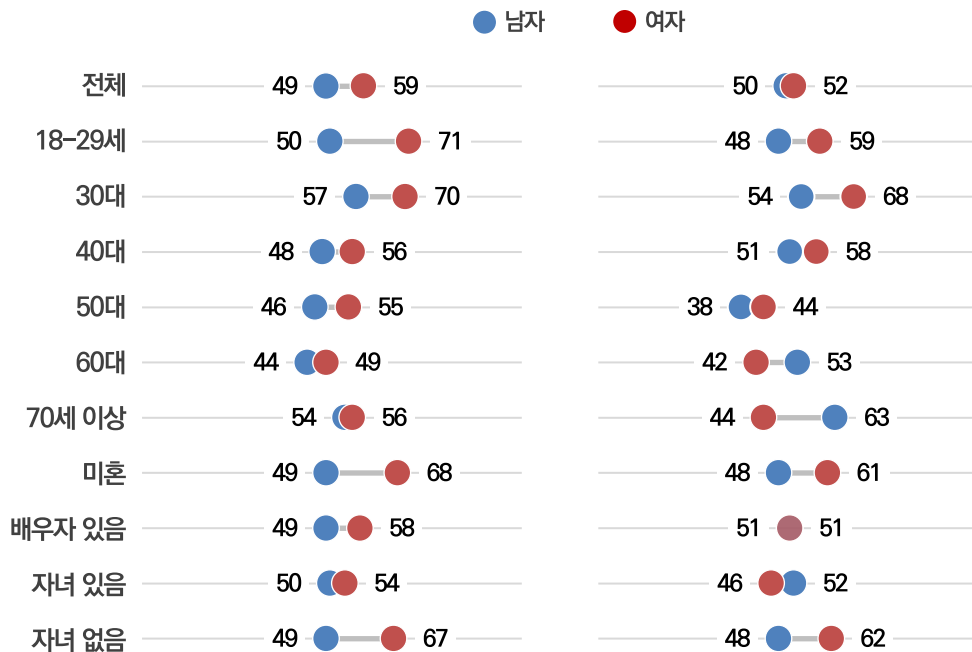
젊은 여성층에서 출산 압력을 강하게 체감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여전히 임신과 출산의 주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한 기대가 여성에게 더 크게 모아진다. 특히 '노산의 위험'과 같은 적절한 출산 시기에 대한 암묵적 사회 분위기는 여성에게 출산 시기에 대한 압박감을 가중시킨다. 출산 후 경력 단절 가능성이 여전히 여성에게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현실적 부담도 크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여성의 가치를 모성과 연결 짓는 관습, 결혼 후 자녀 출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등도 여성이 체감하는 압박을 가중시킨다.

### 2·30대, 미혼,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 출산에 대한 강요와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더욱 강하게 체감 같은 여성이라도 2·30대와 50대 이상, 결혼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 커

(단위 : %)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질문: 다음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비고: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3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한계

####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 증가', '주거 환경 문제',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연' 등 경제적인 요인 때문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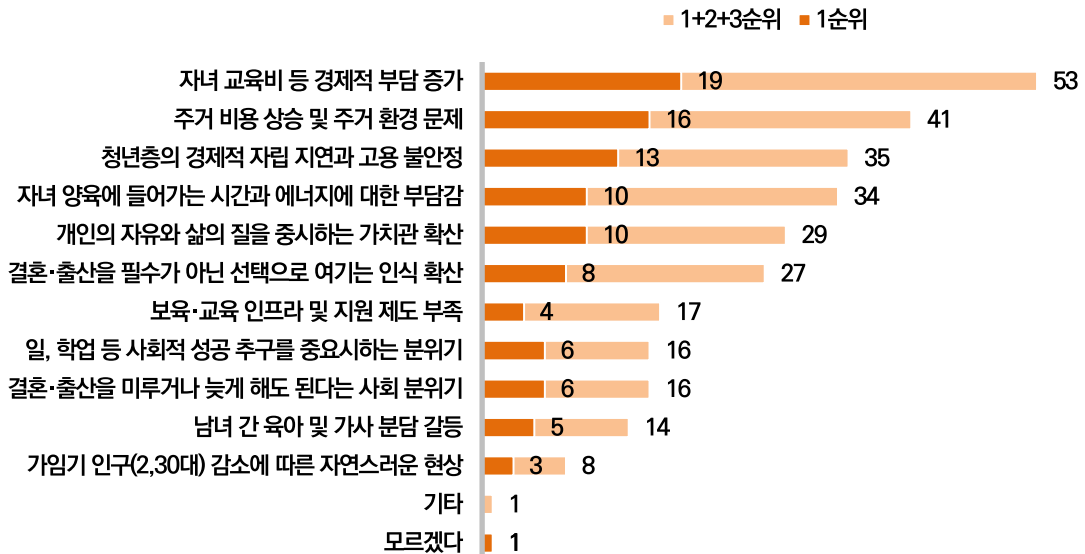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증가'가 출생아 수 감소의 이유라고 생각한다(1+2+3순위). 41%가 언급한 '주거 비용 상승 및 주거 환경 문제', 35%가 답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연과 고용 불안정'까지 포함하면 상위 3가지 이유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결되어 있어, 경제적 요인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명 중 3명 정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부담(34%)',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29%)',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 확산(27%)'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이유로 언급한다. 가치관의 변화와 양육에 대한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은 50대 이상에서(50대 60%, 60대 52%, 70세 이상 57%)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 반면 주거 문제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18-29세 45%, 30대 46%, 40대 51%) 좀 더 높고, 청년층 경제적 불안정은 당사자인 30대 이하에서 특히 높다 (18-29세 42%, 30대 41%). 세대별로 강조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 증가', '주거 환경 문제',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연' 등 경제적인 요인 때문으로 인식

(단위 : %)



질문: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경제적 부담은 50대 이상, 주거 문제는 40대 이하,  
청년층 경제적 불안정은 30대 이하에서 주된 이유로 언급

(단위 : %)

사례수 (명)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증가	주거 비용 상승 및 주거 환경 문제	청년 층의 경제적 지립 자연과 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에 들어 가는 시간과 에너지 에 대한 부담감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중시 하는 가치관 확산	결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 으로 여기는 인식 확산	보육· 교육 인프라 및 지원 제도 부족	결혼· 출산을 미루 거나 늦게 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	일, 학업 등 사회적 성공 추구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	남녀 간 육아 및 가사 분담 갈등	가임기 인구 (2,30 대) 감소에 따른 자연 스러운 현상	기타	모르 겠다
전체	(1,000)	53	41	35	34	29	27	17	16	16	14	8	1	1
성별														
남자	(495)	53	46	36	32	26	27	20	16	15	11	8	2	1
여자	(505)	53	36	34	37	32	27	14	17	17	17	8	1	1
연령														
18-29세	(153)	47	45	42	27	26	20	17	14	16	16	15	4	1
30대	(150)	45	46	41	28	31	32	15	12	15	15	7	2	1
40대	(173)	54	51	27	34	27	24	17	16	17	13	9	1	1
50대	(195)	60	33	30	43	30	26	17	19	15	11	7	0	1
60대	(178)	52	35	33	38	31	31	16	19	16	15	6	1	1
70세 이상	(151)	57	38	39	34	29	29	18	17	16	15	6	0	0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0)	38	40	38	32	30	22	14	19	19	7	18	6	2
여자_18-29세	(73)	58	50	47	21	21	17	21	9	13	26	11	2	0
남자_30대	(78)	46	52	50	21	33	36	9	9	18	11	6	2	0
여자_30대	(72)	44	39	30	35	29	28	22	14	12	20	9	1	1
남자_40대	(88)	58	55	27	27	23	22	24	16	14	14	10	2	0
여자_40대	(85)	51	47	27	42	32	27	10	16	20	12	8	0	1
남자_50대	(98)	59	41	28	46	16	29	22	16	15	11	4	1	1
여자_50대	(97)	61	25	32	40	44	23	12	22	14	12	9	0	2
남자_60대	(87)	59	42	37	31	27	26	26	17	13	13	3	1	1
여자_60대	(91)	46	29	30	45	35	35	7	22	20	16	8	0	0
남자_70세이상	(64)	57	49	39	34	31	25	24	18	8	8	7	0	0
여자_70세이상	(87)	57	30	40	34	28	32	13	17	22	20	5	0	0
혼인여부														
미혼	(337)	50	44	36	28	26	28	16	16	16	16	11	3	1
배우자 있음	(556)	54	41	33	40	31	26	18	18	15	12	6	0	0
사별/이혼	(107)	58	36	38	27	30	28	15	12	20	17	7	0	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18)	55	40	33	38	30	26	18	17	16	13	6	0	1
자녀 없음	(382)	50	43	38	29	27	28	14	15	15	16	11	3	1

질문: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1+2+3순위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 자녀를 갖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다만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 시간 부족도 주된 요인 중 하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 시간 부족 해결도 병행되어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주거 안정,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쏠려 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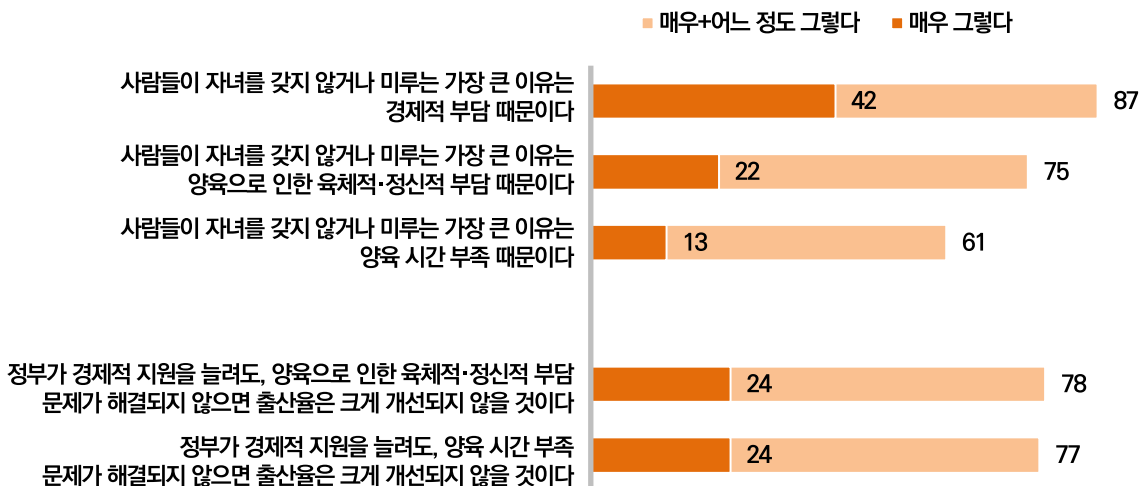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라는 데 87%가 동의한다. 앞서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주된 이유로 자녀 교육비, 주거 비용 상승,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연과 고용불안정 같은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뿐일까?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이다' 라는 데에도 75%가 동의한다.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 시간 부족 때문이다' 라는 진술에도 61%가 공감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자녀 출산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육 과정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자녀 육아에 대한 충분한 시간 확보 또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빠질 수 없는 조건으로 본다.

따라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사람들은 명확하게 인식한다. 전체 응답자 중 78%가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늘려도,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비슷하게, 77%는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늘려도, 양육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이라고 본다. 물질적 지원에 더해 양육 부담의 완화, 양육 시간 확보라는 세 축이 모두 균형있게 개선되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 자녀를 갖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다만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 시간 부족도 주된 요인 중 하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 시간 부족 해결도 병행되어야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5년 3월 기준 약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2,417명, 조사참여 2,27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5%, 참여대비 43.9%)
조사일시	• 2025년 4월 4일 ~ 4월 7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